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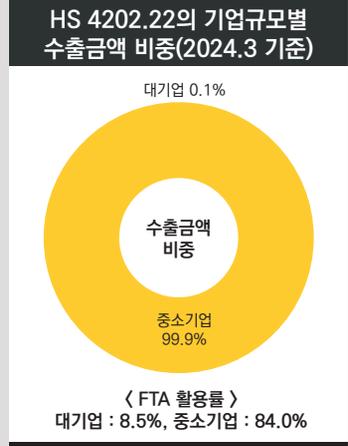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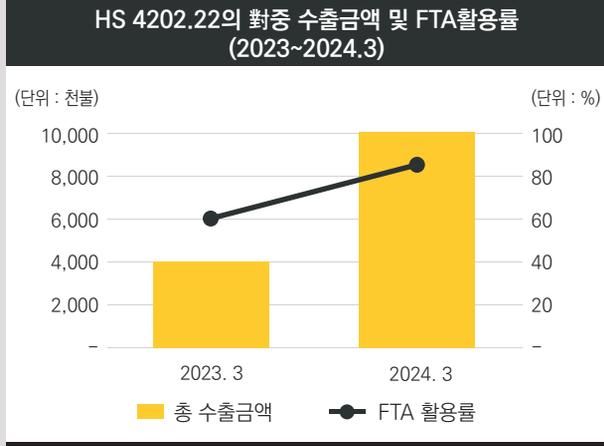
품명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HS code	4202.22				
상대국 수입관세율 (%)	MFN	FTA	RCEP		
	6	0	'24	'25	'26
	7	6	5		

선정 사유	<p>▶ 해당 품목에 대한 對중 수출증감률은 19년부터 23년까지(22년 제외)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4년 3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이 144.1%로 대폭 상승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 연도별 對중 수출동향(HS code 4202.22)</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불, %)</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수출금액</th> <th>수출증감률</th> </tr> </thead> <tbody> <tr><td>2019</td><td>13,125</td><td>44.3</td></tr> <tr><td>2020</td><td>20,747</td><td>58.1</td></tr> <tr><td>2021</td><td>40,284</td><td>94.2</td></tr> <tr><td>2022</td><td>18,090</td><td>-55.1</td></tr> <tr><td>2023</td><td>26,811</td><td>48.2</td></tr> <tr style="border: 2px solid red;"><td>2023.3</td><td>4,040</td><td>-45.3</td></tr> <tr style="border: 2px solid red;"><td>2024.3</td><td>9,861</td><td>144.1</td></tr> </tbody> </table> <p>▶ 중국의 對한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제품의 수입 증가 및 중국 가방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선정함</p>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9	13,125	44.3	2020	20,747	58.1	2021	40,284	94.2	2022	18,090	-55.1	2023	26,811	48.2	2023.3	4,040	-45.3	2024.3	9,861	144.1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9	13,125	44.3																							
2020	20,747	58.1																							
2021	40,284	94.2																							
2022	18,090	-55.1																							
2023	26,811	48.2																							
2023.3	4,040	-45.3																							
2024.3	9,861	144.1																							

우리나라 對중 수출동향 (HS 4202)	<p>▶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의 對중 수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시트(sheet)로 만든 것(HS 4202.22.-1010, 1020,1090)”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HS 4202.22-2000)”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 연도별 對중 수출동향(HS code 4202.22 세부품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불, %)</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순번</th> <th rowspan="2">HSK</th> <th rowspan="2">품목명</th> <th colspan="3">수출금액</th> </tr> <tr> <th>2022</th> <th>2023</th> <th>2024.3</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계</td> <td>18,090</td> <td>26,811</td> <td>9,861</td> </tr> <tr> <td>1</td> <td>4202221010</td> <td>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td> <td>679</td> <td>1,203</td> <td>4</td> </tr> <tr> <td>2</td> <td>4202221020</td> <td>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td> <td>10,931</td> <td>17,074</td> <td>7,752</td> </tr> <tr> <td>3</td> <td>4202221090</td> <td>기타</td> <td>575</td> <td>312</td> <td>185</td> </tr> <tr> <td>4</td> <td>4202222000</td> <td>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td> <td>5,905</td> <td>8,222</td> <td>1,920</td> </tr> </tbody> </table>	순번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2	2023	2024.3			총계	18,090	26,811	9,861	1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679	1,203	4	2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10,931	17,074	7,752	3	4202221090	기타	575	312	185	4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905	8,222	1,920
순번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2	2023	2024.3																																				
		총계	18,090	26,811	9,861																																			
1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679	1,203	4																																			
2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10,931	17,074	7,752																																			
3	4202221090	기타	575	312	185																																			
4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905	8,222	1,920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p>▶ HS 4202.22(핸드백)의 對중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증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률 23년 1분기 기준 59.6%, 24년 1분기 기준 83.9%로 나타남 -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한-중 FTA는 CTH이고, RCEP은 CC 또는 RVC 40% 임 <p>▶ 24년 1분기 기준, HS 2202.10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0.1%, 중소기업 99.9%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률은 대기업 8.5%, 중소기업 84.0% 임
-------------------------------	---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중국
수입
동향

- ▶ 24년 3월 기준 중국의 선정품목 주요 수입국은 이탈리아, 프랑스, 캄보디아, 베트남, 스페인 순으로 나타남
 -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이탈리아(35.0%), 프랑스(33.0%)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캄보디아(7.4%), 베트남(6.2%), 스페인(3.6%)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가방 산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 명품 브랜드는 중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음
 - * 24년 3월 기준 우리나라는 6위 수입국임

특이
사항

- ▶ 중국의 가죽제품 수출입 검사에는 중국의 품질관리법과 국가표준(GB)이 적용됨
 - 해당 국가표준은 강제성을 지니며, 중국 수출 전 수출 품목이 해당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중국 세관은 검사에서 권장규격과 상이한 품목을 불합격 품목으로 분류하여 통관을 보류하고, 유통검사 과정에서 불합격 품목으로 확인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 중국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며, 루이비통과 구찌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3.8%), 샤넬(2.8%), 코치(2.0%), 아디다스(1.6%)가 뒤를 잇고 있음
 - 선두 기업 시장 점유율이 4%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품질 및 디자인 개선과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소비자 접점 확대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면 국내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시사점

- ▶ 선정품목의 한-중 FTA 특혜관세율 0%, RCEP 특혜관세율 7%, MFN은 6%로 한-중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 해당 품목은 24년부터 한-중 FTA 특혜관세율이 0%로 완전 철폐되었으며, RCEP의 경우 단계적 철폐 대상 품목으로 발효 10년차인 2030년도에 특혜관세율이 0%로 완전 철폐됨
- ▶ 초기의 중국 가방시장은 소위 저가 '짜퉁(위조상품)' 생산 및 판매를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품질과 디자인을 중시하고 있는 추세임
 - 중국에 선정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제품 디자인을 더욱 중시하며, 개성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등 시장 경쟁력 확보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품명	그 밖의 파스타	
HS code	1902.30	
상대국 수입관세율 (%)	MFN('24)	FTA
	6.4	0



▶ 해당 품목의 대비 수출증감률은 20년부터 23년까지(22년 제외)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4년 3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이 82.5%로 상승함

한국의 연도별 대비 수출동향(HS code 1902.30)

(단위 : 천불, %)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9	78,469	12.7
2020	120,967	54.2
2021	122,771	1.5
2022	120,480	-1.9
2023	173,423	43.9
2023.3	33,487	-13.6
2024.3	61,097	82.5

선정
사유

▶ 기생충의 짜파구리, 그룹 BTS의 불닭볶음면 소비 등 K컬처 인기로 힘입어 미국 내 한국 라면의 소비 증가로 인해 해당 품목의 대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동 품목을 선정함
- 미국은 세계 6위의 인스턴트 면 소비 국가로 2023년 시장 규모는 약 51억 인분임(국내 인스턴트 면 시장규모는 약 40억 인분으로 세계 8위 수준임)

▶ 그 밖의 파스타(HS 1902.30)의 대비 수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인스턴트 면류(HS 1902.30-1010, 1090)”의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우리나라
대비
수출동향
(HS 1902)

한국의 연도별 대비 수출동향(HS code 1902.30 세부품목)

(단위 : 천불, %)

구분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2	2023	2024
		총계	120,480	173,423	61,097
1	1902301010	인스턴트 면류 (라면)	76,161	126,588	47,109
2	1902301090	인스턴트 면류 (기타)	25,828	31,308	10,626
3	1902309000	기타	18,491	15,527	3,363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 HS 1902.30(그 밖의 파스타) 대비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증가함
- FTA 활용률 23년 1분기 78.8%, 24년 1분기 80.4%로 나타남
-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CC임
▶ 24년 1분기 기준, HS 1902.3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1.6% 중소기업 98.4%임
- FTA 활용률은 대기업 97.3%, 중소기업 80.4% 임

<p>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p>	<p>HS 1902.30 對미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 (2023~2024)</p> <p>(단위 : 천불) (단위 : %)</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간</th> <th>총 수출금액 (천불)</th> <th>FTA 활용률 (%)</th> </tr> </thead> <tbody> <tr> <td>2023. 1분기</td> <td>~35,000,000</td> <td>~80</td> </tr> <tr> <td>2024. 1분기</td> <td>~60,000,000</td> <td>~80</td> </tr> </tbody> </table>	기간	총 수출금액 (천불)	FTA 활용률 (%)	2023. 1분기	~35,000,000	~80	2024. 1분기	~60,000,000	~80	<p>HS 1902.3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4년 1분기)</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업규모</th> <th>비중 (%)</th> </tr> </thead> <tbody> <tr> <td>대기업</td> <td>1.6%</td> </tr> <tr> <td>중소·중견기업</td> <td>98.4%</td> </tr> </tbody> </table> <p>〈FTA 활용률〉 대기업 97.3%, 중소기업 80.4%</p>	기업규모	비중 (%)	대기업	1.6%	중소·중견기업	98.4%
기간	총 수출금액 (천불)	FTA 활용률 (%)															
2023. 1분기	~35,000,000	~80															
2024. 1분기	~60,000,000	~80															
기업규모	비중 (%)																
대기업	1.6%																
중소·중견기업	98.4%																
<p>미국 수입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기준 미국의 HS 1902.30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 이탈리아, 중국, 대만, 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37.7%), 이탈리아(15.1%), 중국(10.2%)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6.6%), 태국(6.4%), 캐나다(6.2%)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p>특이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자국 라면 제조업체가 없어 일본 브랜드를 비롯한 주요 라면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농심이 일본의 닛신식품*을 제치고 미국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였으며, 현지 매체에 따르면 '24년 미국 소비자 선호도 1위 라면은 일본의 삿포로 이치방이고, 2위가 농심의 신라면이라 함 - 농심 외에도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인기도 높으며 삼양식품의 경우 미국 내 히스패닉(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의 미국 이주민) 인구를 타겟팅하여 새로운 맛(하바네로라임 불닭볶음면)의 제품을 출시하는 등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으로 라면 등 식품 수출 시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에 의하여 식품 시설 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과 수입식품 사전신고가 필수이기에 주의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브랜드인 삿포로, 마루찬, 닛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및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다양한 라면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전역에 유통함 ** (식품안전현대화법) 사람과 동물이 먹는 식품에 대하여 현대식 제조공정을 마련하여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안전한 식품 공급 보장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품목의 한-미 FTA 특혜관세율 0%, MFN은 6.4%로 한-미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측 수입관세율 MFN 6.4%, FTA 특혜관세 0%로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6.4% 있는 품목이며, 주요 수입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음 ▶ 최근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에서 쉽고 빠른 식사를 추구하는 층이 늘어남에 따라 컵라면을 포함한 인스턴트 면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 추구하고 마케팅 활동 등을 하며 시장점유율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편의성과 경제성을 앞세운 식문화 트렌드에 따라 향후 미국의 인스턴트 면 시장 규모는 점점 확대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미국의 다른 주요 수입국과 다르게 FTA 활용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품명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HS code	2202.10			
상대국 수입관세율 (%)	MFN('24)	VK-AK FTA	RCEP	
	35	0	'24	'25
			24.5	21
				'26
				17.5



▶ 해당 품목에 대한 **對베 수출증감률**은 22년부터 23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4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이 529.6%로 대폭 상승함

한국의 연도별 對베트남 수출동향(HS code 2202.10)
(단위 : 천불, %)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8	1,778	112.6
2019	1,038	-41.6
2020	1,095	5.5
2021	431	-60.7
2022	717	66.5
2023.3	306	50.7
2024.3	1,925	529.6

▶ 베트남은 (1) 더운 기후, (2) 가구별 사용하고 있는 물은 대부분 음용이 불가능한 석회수임, 이에 따라 베트남 내 물 음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과 동시에 한류의 관심까지 겹치는 것 역시 베트남의 **對한 수입**이 급등한 요인으로 판단되어 해당 품목을 선정함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HS 2202.10)”의 **對베 수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3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기타(색깔을 입히지 않은 것)(HS 2202.10-9000)”의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한국의 연도별 對베 수출동향(HS code 2202.10 세부품목)
(단위 : 천불, %)

구분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1	2022	2023	2024
		총계	430	718	1,811	1,925
1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178	190	628	139
2	2202109000	기타	252	528	1,183	1,786

▶ HS 2202.10(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의 **對베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증가함(추후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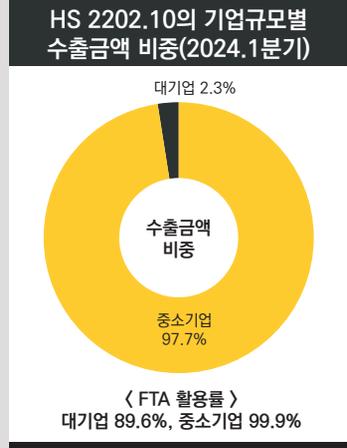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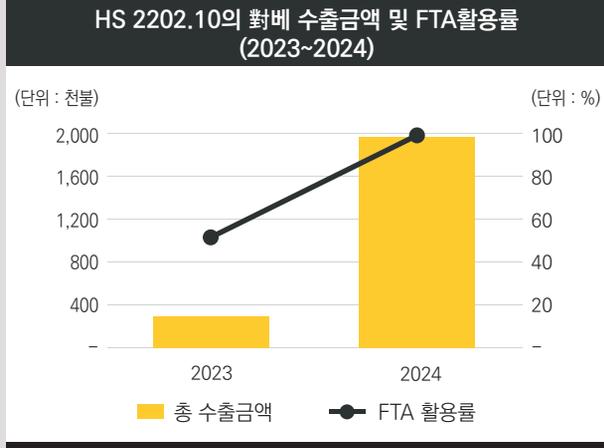
- FTA 활용률 '23년 1분기 기준 53.5%, '24년 1분기 기준 99.6%로 나타남
-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한-베트남 FTA는 CTH or RVC 40%, 한-아세안 FTA는 RVC 40%, RCEP은 CC 임

▶ 24년 1분기 기준, HS 2202.10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2.3%, 중소기업 97.7%임

- FTA 활용률은 대기업 89.6%, 중소기업 99.9% 임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베트남
수입
동향

- ▶ 22년 기준 베트남의 HS 2202.10의 주요 수입국은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2년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태국(97.6%)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1.2%), 말레이시아(0.6%), 캄보디아(0.4%), 한국(0.1%)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 * 22년 기준 우리나라는 5위 수입국임

특이
사항

-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 중 하나로, 도시화 및 생활 수준과 함께 소비자들의 식음료 소비 생활 패턴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식음료 중 탄산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접 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수요 증가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 ▶ 특히 정수 시설이 부족한 베트남은 가정 식수 대신 천연 감미료나 향을 투입한 음료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식품 상품의 경우 베트남 식품 안전법관 관련 법령에 따라 「베트남 식품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식품 라벨링 요건에 대한 위반 행위가 탐지될 경우, 베트남 현지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식품 상품을 수출 할 경우 해당 요건의 준수(라벨링 위치, 크기, 형태, 표기 언어 등)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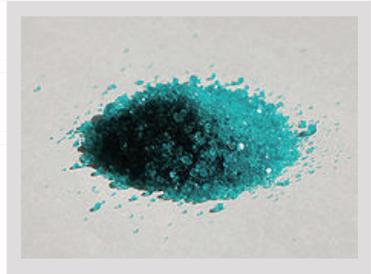
<베트남 식품 라벨링 요건 개요>

- (개요)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 유통되는 제품의 라벨링 일반 조항을 규정
- (적용대상)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단체 및 상품을 수출입하는 개인 및 단체 모두 적용
- (제외사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신선식품(포장없는 연료, 농산물 원재료, 건축 재료, 스크랩 등)

시사점

- ▶ 선정품목은 한-베/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 0%, RCEP 특혜관세율 24.5%, MFN은 35%로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 RCEP은 단계적 철폐 대상 품목으로 발효 10년차인 2030년도에 특혜관세율이 0%로 완전 철폐됨
- ▶ 선정품목의 경우 MFN 세율이 35%인 고세율의 품목으로 FTA를 활용한 가격경쟁력 확보는 베트남 시장진출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
 - 더불어 베트남 소비자들의 취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품명	황산니켈	
HS code	2833.24	
상대국 수입관세율 (%)	MFN('24)	RCEP
	3.9	0



▶ 해당 품목에 대한 對일 수출증감률은 19년부터 22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4년 3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이 821.6%로 대폭 상승함

한국의 연도별 對일 수출동향(HS code 2833.24)

(단위 : 천불, %)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9	56,940	780
2020	76,910	35.1
2021	118,882	54.6
2022	155,128	30.5
2023	152,253	-1.9
2023.3	4,291	-83.8
2024.3	39,544	821.6

선정
사유

▶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기차 수요 증가와 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 체결 및 발효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 등의 이유로 對한 수입이 급등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선정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 관련 법안임

▶ 황산염의 對일 수출금액은 “황산니켈(HS2833.4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4년도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황산니켈(HS2833.44)”의 수출금액은 대폭 상승했으나, “기타(그 밖의 황산염)(HS2833.29)”의 수출금액은 소폭 감소함. 이외 품목의 수출 금액은 미미한 수준임.

한국의 연도별 對일 수출동향(HS code 2833 세부품목)

(단위 : 천불, %)

구분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2	2023	2024.1분기
		총계	157,730	154,671	40,210
1	283321	황산마그네슘	0	0	0
2	283322	황산알루미늄	0	0	0
3	283324	황산니켈	155,128	152,253	39,544
4	283325	황산구리	0	0	0
5	283327	황산바륨	75	19	0
6	283329	기타 (그 밖의 황산염)	2,527	2,399	666

우리나라
對일
수출동향
(HS 2833)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 ▶ HS 2833.24(황산니켈) 對일 수출 금액은 증가하였으며 FTA 활용률은 23년과 동일함
 - FTA 활용률 23년 1분기 100%, 24년 1분기 100%로 나타남
 -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CTH or RVC 40%임
- ▶ 24년 1분기 기준, HS 2833.24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100%임
 - FTA 활용률은 대기업 100% 임

<p>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p>	<p>HS 2833.24의 對일 수출금액 및 FTA활용률 (2023~2024)</p> <p>(단위 : 천불) (단위 : %)</p> <p>2023 2024</p> <p>총 수출금액 FTA 활용률</p>	<p>HS 2833.24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4년 1분기)</p> <p>수출금액 비중</p> <p>대기업 100.0%</p> <p>< FTA 활용률 > 대기업 100.0%</p>
<p>일본 수입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기준 일본의 HS 2833.24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 대만, 벨기에, 핀란드 등의 순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44.1%), 대만(34.7%)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10위권 이내의 수입국인 벨기에, 핀란드 등의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미미함 	
<p>특이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배터리 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 등을 미국의 FTA 체결국 내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의 FTA 체결국인 한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관심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한국산 황산니켈의 수출액은 8.5천만 달러였으나 23년 수출액은 2.4억 달러로 약 189%가 증가함 -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23년 수출액의 약 61.6%가 일본을 대상으로 함 ▶ 23년 3월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을 체결·발효하며 일본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품목의 수출이 일본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대선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정치적 이슈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동 품목의 수출 동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p>* 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각화와 전기차 배터리 기술 도입의 촉진을 위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공평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핵심광물로는 니켈,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이 해당됨</p>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품목의 RCEP(한-일) 특혜관세율 0%, MFN은 3.9%로 RCEP(한-일)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측 수입관세율 MFN 3.9%, RCEP 0%로 RCEP 활용 혜택이 3.9% 있는 품목임 ▶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핵심 광물과 구성 물질의 공급망 관련 제도가 신설되며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선정 품목은 주요국 관련 제도에 따라 공급망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임 ▶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현 시점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호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RCEP 협정국(ASEAN,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간 적용되는 협정세율이 상이하므로 특혜관세율 적용시 유의가 필요함 	